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현정	02-2133-8372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s://commission.esoul.g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3건

○ 수정가결 : 3건

※ 자문, 보류, 부결,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개최결과 1부. 끝.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2026.4.8.(수) 14:00 】

■ 총 2건 (심의 2건)

연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
1	〈심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3·4, 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24번지 일대(23,741.5㎡) ○ 내 용 : 상암 DMC롯데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획지통합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판매시설 비율 폐지)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팀장 : 김성배 담당 : 최신영 (2133-8382)
2	〈심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590번지 일원(1,774,479㎡) ○ 내 용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용도, 용적률, 높이계획 등) - 대지내공지 및 통로 변경(지하연결통로 조성 등)	수정가결	〈동남권사업과〉 총괄계획팀 팀장 : 노승원 담당 : 원효연 (2133-8256)
3	〈심의, 경관심의〉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경관계획(안)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대(66,376.3㎡) ○ 내 용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수정가결	〈도시공간전략과〉 복합개발전략팀 팀장 : 공경배 담당 : 서민우 (2133-4654)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성배	02-2133-837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상암 DMC 롯데몰 개발사업' 본궤도...개발 추진 탄력

-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3·4, 15)' 세부개발계획 결정
- 장기간 지연된 서북권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조성 본격화 및 광역중심 기능 강화
- 기존 판매시설 비율(34.7%) 제한 폐지, 획지 통합 등을 통해 사업 실행력 제고
-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반영하여 23층 규모의 쇼핑·문화·업무 시설 조성
-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과의 공존을 고려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

□ 서울시는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어 온 서북권 대표 복합문화공간 '상암 DMC 상업·업무 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3·4, 15)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상암 DMC 일대에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대상지는 마포구 상암동 1625번지 일대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북권 광역중심에 걸맞은 상업·문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해당 사업은 201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13년 토지 매각과 2021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거쳤으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이번 세부개발계획은 롯데쇼핑(주)의 주민 제안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쇼핑·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대지면적 20,644.1㎡ 규모로, 지하 8층~지상 23층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해 복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변경을 통해 판매시설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획지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 계획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 아울러 성암로변에는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장을 연계한 환승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도입해, 상암 DMC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마포구와 롯데쇼핑(주) 간 협의를 통해 건물 내 공공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 또한 향후 대규모 점포 개설 과정에서 인근 전통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협력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본 사업은 향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 DMC 일대에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거점이 형성되어 서북권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세부개발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상암 DMC 상업·업무 용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해당 부지가 일과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서북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동남권사업과장	임창섭	02-2133-8260
총괄계획팀장	노승원	02-2133-8255
관련 누리집 (메뉴)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6년 4월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핵심 부지에 위치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문화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조성 사업은 2014년 현대차그룹이 옛 한국전력 부지 매입 후 2016년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업무·호텔·문화 복합 시설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후 2025년 2월 추가협상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협상을 완료했다.

- 금회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은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징지정용도 폐지에 따른 권장 용도 신설, 용적률, 높이계획, 공공기여계획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주요 도입 용도는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국제업무 지원 기능과 함께 체험형 과학관(전시장), 공연장, 저층부 옥상정원, 고층부 전망공간 등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을 복합 조성하여 공공성을 높였다.
-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보행축, 부지 중심부 도심숲,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결되는 지하연결통로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인접 도시공간과 유기적·입체적으로 연계하고 가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설계하였다.
- 공공기여 총액은 1조 9,827억 원(‘16.5월 기준)으로, 현재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일대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 사업, 한강·탄천 수변공간 조성 등에 활발히 사용 중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에 따라 오는 `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체결, 제영향평가, 건축 변경 심의 등 잔여 절차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현대자동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글로벌 랜드마크 개발이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업무 거점, 문화·여가 공간,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를 조성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미래 도시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위치도



□ 조감도



2026. 4. 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서울

SEOUL
MY SOUL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02-2133-6950

복합개발전략팀장 공경배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원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6. 4. 8.(수)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의 복합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가로 활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43층, 연면적 약 42만㎡ 규모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2,071세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 금번 계획변경의 핵심은 규제철폐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혜택을 적용받아 비주거 면적 축소에 따라 주택세대수를 늘린 부분이다. 주택세대수는 기존 1,790세대에서 2,071세대로 281세대 늘었으며, 비주거 면적이 줄어든 대신 시민을 위한 공원면적은 증가했다.
- 사업부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및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서울형 공공키즈카페, 어린이 과학체험관, 느린학습자 교육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 수요를 반영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인재사관학교가 조성되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여 시민 일상 편의와 온수역 일대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에 따라 향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열린 녹지와 문화·상업·주거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일상 속 여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 서남권 전역에 성장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임, 위치도 및 투시도 각 1부

- 위치도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대)



- ☐ 투시도



※상기 건축계획(안)은 예시안이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